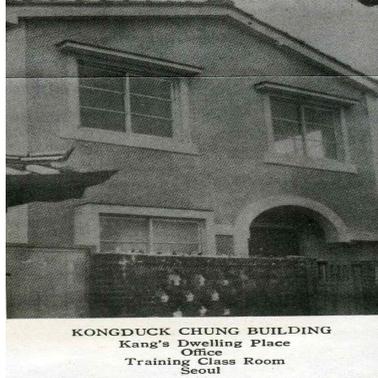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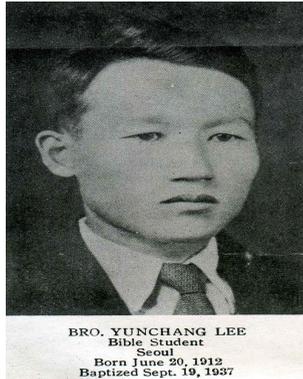
제11장 선교부와 교회 설립



공덕정 선교본부 건물

강명석 선교사는 최초로 설립한 울산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자 체계적인 선교를 위하여 경성(京城)에 선교본부를 설립할 계획을 세운다. 이어 1937년 2월경 상경하여 어느 곳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할까를 고민하였다. 먼저는 자신의 출석교회였던 종교감리교회와 가까운 내수정(內需町) [현 종로구 내수동]은 어떨까? 생각하며 잠시 머물렀다가 다음으로 5월경 동교정(東橋町) [현 마포구 동교동]으로 옮겨 동교교회를 설립하였고, 최종적으로 9월경 공덕정(孔德町) [현 마포구 공덕동]에 2층 건물을 마련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 후 강명석은 이 건물을 선교본부로 삼아 환원 운동을 전개(展開)하였다.

강명석 선교사가 준비한 선교본부 건물에는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住宅, Kang's dwelling]이 있었고, 선교본부 사무실(place office)이 있었다. 그리고 훈련교실(training class room)이 있었는데, 이 훈련교실에서 전도자를 훈련하는(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다시 말해서 이 훈련교실은 일종의 전도자학교(preacher school)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육(神學教育)의 효시(嚆矢)로 평가될 수 있다. 당시 전도자 훈련을 받았던 자로는 1937년 9월에 침례를 받은 이윤창(1912.6.20.)을 대표적으로 “Bible student”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윤창 형제

또한, ‘대현교회 박주영’, ‘동교교회 김태윤’, ‘경주교회 이창원’ 등이 있었는데, 강명석 선교사는 이들을 ‘deacon(집사)’으로 소개하였다. 이는 초대교회의 사역

자인 스테반(Stephen)과 빌립(Philip) 같은 일꾼으로 이들도 훈련교실에서 전도자 훈련을 받으면서, 담임 전도자를 돕는 사역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훈련교실은 1937년 9월경부터 운영한 것으로 추정(推定)되지만, 정확히 알 수 없어 매우 유감이다. 아무튼, 강명석 선교사는 1936년 12월부터 1940년 앓아눕기까지 약 3,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 교회사 속의 환원운동 선구자로서 경성을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정을 불태웠다. 다시 말해서 그는 훈련교실을 통해 전도자를 양성하는 일, 교파형 교회 목사들을 환원시키는 일,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여 제자들을 사역자로 보내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가 이렇게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은 1926년 부산 한센인들의 병원인 상애원과 감만리교회(상애원교회)에서 목회실습을 할 때 다짐했던 각오가 항상 그를 채찍질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여기 오기 전에 음식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미리 안 때문에, 팔아 놓은 쌀과 반찬거리를 가지고 밥과 반찬을 제 손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마음이 꼭 상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언제까지든지 바울 선생님처럼 결혼하지 말고 지금과 같이 독신으로 이러한 생활을 해가면서 전도하

고 싶은 생각도 제 머리에 가끔 일어납니다.” [『기독신보』(1926.11.3.), 「감사, 고백, 호소(2)」]

강명석 선교사는 신학생 시절에 소외당하고 상처 입은 한센인들의 신앙공동체인 감만리교회(상애원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를 체험하였고,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통해서 ‘환원 운동’을 배우고 익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러워하고, 닮고자 하였기에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처럼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그러기에 그는 건강을 돌볼 겨를도 없이 온 힘을 다해 몸부림을 치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전도자들을 훈련하여 설립된 교회를 맡기고 순회하며 돌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가 설립한 교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37년 5월 동교 그리스도의 교회[東橋基督の教會, Tongkyo Church of Christ]를 설립하였다. 예배당 주소는 경기도(京畿道) 경성부(京城府) 동교정(東橋町) 59번지이다. [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혹은 서교동으로 짐작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동교교회 설립 후 강명석은 조선총독부에 먼저 7월 6일(화) 동교교회 예배당 주소로 기독교의 교회(基督の教會) 포교 계[목회자

등록: '소속교종파(교파), 포교자 주소, 포교자 씨 명(교역자 이름 등록)'] 서류를 제출하였고, 8월 30일(월)에 조선총독부관보에 게재되었다. 다음으로 7월 6일(화) 포교소 설치 계[교회 설립 등록: '소속교종파, 포교소 명칭(교회 명칭), 포교소 소재지(예배당 위치)'] 서류를 제출하였고, 10월 18일(월) 조선총독부관보에 게재되었다. [국가기록원(1937), 「조선총독부관보」, 3188호; 「조선총독부관보」, 3288호.] 동교교회 담임 전도자는 강명석 선교사였고, 사역을 돕는 김운태(1908.2.28.) 집사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동석기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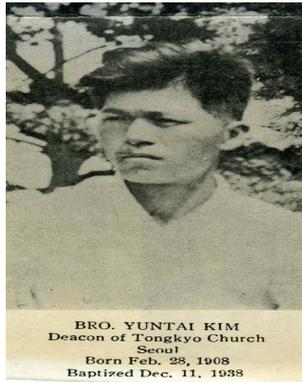


TONGKYO CHURCH OF CHRIST
Seoul
Established May 1937

동교교회 예배당과 초기 교인들(50명)

“강명석 형제는 프리드-하드먼대학에 1년 동안 다녔고 1936년에 조선으로 돌아왔다. 강명석 형제는 1937년에 조선의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았다.” [S. K. Dong, “The

Harvest Field, 281. 여기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공식적인 허가란’ 조선총독부에 포교계를 제출하여 포교자(전도자)로의 등록을 허락받은 것을 말한다(국가기록원(1937), 「조선총독부관보」, 3188호.)]



동교교회 김운태 집사

2. 1937년 9월 경주 그리스도의 교회[慶州基督の教會, Kyungchu Church of Christ]를 설립하였다. 예배당 주소는 경상북도(慶尙北道) 경주군(慶州郡) 경주읍(慶州邑) 노서리(路西里) 77번지이다. [현 경상북도 경주시 봉황로 35-1(노서동)] 경주교회는 1937년 9월 23일(목) 조선총독부에 포교소 설치 계를 제출하였고, 12월 16일(목) 조선총독부관보에 게재되었다. 담임 전도자는 곽해민[郭海玟, 1878.10.22.]이었으며, 이창원(1910.9.16.) 집사가 담임 전도자를 도와 사역하였다. [국가기록원(1937), 「조선총독부 관보」, 3277호.]



CHURCH OF CHRIST
Kyungchu, Kyungbook
Established Oct. 1937

경주교회 예배당과 초기 교인들(15명)



BRO. HAIMIN KWAK
Evangelist
Kyungchu, Kyungbook
Born Oct. 22, 1878
Baptized April 19, 1937

경주교회 광해민 전도자



BRO. CHANGWON LEE
Deacon of Kyungchu Church
Kyungchu, Kyungbook
Born Sept. 10, 1909
Baptized Oct. 10, 1939

경주교회 이창원 집사

3. 1937년 10월 대현 그리스도의 교회[大峴基督の教會, Taihyun Church of Christ, 공덕정교회]를 설립하였다. 예배당 주소는 경기도(京畿道) 경성부(京城府) 공덕정(孔德町) 산6의 57번지이다. [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16길 35(공덕동)] 대현교회는 10월 27일(수) 조선총

독부에 포교소 설치 계를 제출하였고, 12월 16일(목) 조선총독부관보에 게재되었다. 그리고 1938년 12월 5일(월) 이용주[李用周, 1880.2.27.] 전도자로 포교담임자 선정 계를 제출하였으며, 1939년 3월 16일(목) 관보에 게재되었다. [국가기록원(1939), 「조선총독부 관보」, 3277; 「조선총독부 관보」, 3645호.] 그리고 박주영(1898.) 집사가 담임 전도자의 사역을 도왔다.



대현교회 예배당과 초기 교인들(40명)

특히 대현교회 예배당은 감리교회의 건물이었는데 강명석 선교사가 감리교회 목사인 원익상[元翼常, 1876.~1947.]에게 적당한 값을 주고 사서 그리스도의 교회 대현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이 건물의 매입 자금은 강명석이 1937년 11월 7일(주일) 미국교회에 모금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예배당 사진을 동봉’하여 보냈다. 그리고 사진의 예배당을 매입하겠다는 뜻을 알

리면서 후원을 부탁하자 미국교회에서 350불을 모금하여 보내주므로 그 후원금으로 건물을 산 것이다. [김세복, 『교회사』, 51, 54.] 이 일에 대하여 동석기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공덕정교회는 강명석 형제가 설립한 교회로, 그에 의해 예배당이 매입되었다. 나는 강 형제가 미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에 의해 조선으로 파송되지 않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돕지 않았다면, 서울에 공덕정교회는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S. K. Dong, “*The Harvest Field*”, 284~285.] [여기서 공덕정교회는 대현교회를 말하는데, 대현교회의 주소가 공덕정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BRO. YONGCHU LEE
Evangelist
Seoul
Born Feb. 27, 1880
Baptized Mar. 12, 1908

대현교회 이용주 전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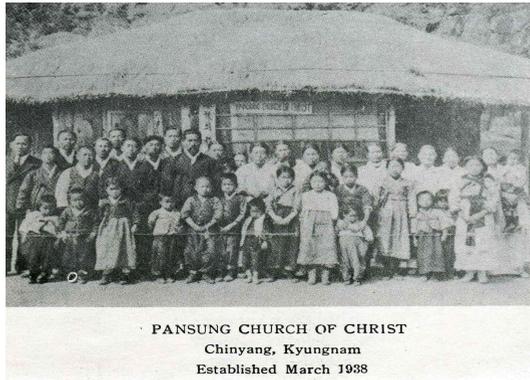


BRO. CHUYUNG PAK
Deacon of Taihyun Church
Seoul
Born 1898
Baptized Nov. 14, 1927

대현교회 박주영 집사

4. 1938년 3월 반성 그리스도의 교회[盤城基督の教會,

Pansung Church of Christ]를 설립하였다. 예배당은 경상남도(慶尙南道) 진주군(晉州郡) 이반성면(二班城面) 가산리(佳山理) 875번지이다. [현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길 26-6] 반성교회는 1938년 3월 21일(월) 조선총독부에 포교소 설치 계를 제출하였다. 이어 1938년 9월 5일(월) 유흥기(兪泓基) 전도자로 포교담임자 선정 계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두 가지 등록 서류는 1939년 2월 6일(월) 조선총독부관보에 동시 게재되었다. 그러나 유흥기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아 소개하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가기록원(1939), 「조선총독부 관보」, 3613호.]



반성교회 예배당과 초기 교인들(2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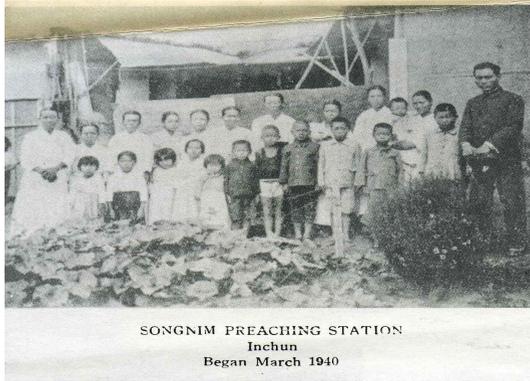
5. 1938년 3월 두동 그리스도의 교회[斗東基督の教會, Doodong Church of Christ]를 설립하였다. 예배당 주소는 경상남도(慶尙南道) 울산군(蔚山郡) 두동면(斗東面)

만화리(萬和理) 941번지이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만화읍 립1길] 두동교회는 3월 20일(일) 조선총독부에 포교소 설치 계를 제출하였다. 이어 9월 15일(목)에는 곽해민 전도자로 포교담임자 선정 계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이 두 가지 등록 서류는 1939년 1월 18일(수) 조선총독부관보에 동시 게재되었다. [국가기록원(1939), 「조선총독부 관보」, 3597호.] 아쉬운 것은 예배당과 초기 교인을 볼 수 있는 사진이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 울산교회는 두동교회와 같은 날 포교소 설치 계와 곽해민으로 포교담임자 선정 계를 제출하여 조선총독부 관보에 게재된 것으로 보아 곽해민은 두 교회의 전도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 1940년 3월 인천 송림 그리스도의 교회[松林基督の教會, Songmim Preaching Station]를 시작하였다. 여기서 Preaching Station이란 ‘어떤 전도자가 교회 설립을 목표로 수시로 다니면서 전도 집회, 성서공부를 인도하는 일종의 교회 설립 전에 집회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강삼정 박사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Preaching Station은 ‘설교 역’이란 의미인데 미국에서는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곳곳에 시간과 때에 상관없이 다니면서 설교하는 장소(집회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설교를 듣고 침례를 받았다는 자
들이 나오면 그곳에 침례 받은 자들을 중심으로 교회
를 설립합니다.” [2019.02.02. 메일]



송림교회 예배당과 초기 집회참석자들(20명)



송림교회 강종원 전도자

강명석 선교사는 교회의 설립(設立)과 시작(始作)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설립되었다(established)와 시작되

었다(began)] 그러므로 교회는 아무 때나 시작할 수는 있지만, 교회 설립은 반드시 구원의 침례 받은 회중들과 주의 만찬 기념이 있어야 하므로 교회의 설립은 주일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침례 받은 회중이 없을 경우는 교회 설립을 목적으로 교회를 시작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강명석은 인천 송림교회를 시작할 당시 침례 받은 회중이 없었기에 경기도(京畿道) 인천부(仁川府) 송림정(松林町) 47번지와 48번지의 한옥을 교회 설립을 목적으로 한 집회 장소로 삼았다. [현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그리고 강종원(1917.8.20.)을 담임 전도자로 임명하여 송림교회가 설립되도록 지원하였다. [『誌友消息』, 『道しるべ』, 1940.5, 21; 『誌友消息』, 『道しるべ』, 1940.11, 21.]



동방교회 예배당과 초기 집회참석자들(10명)

7. 1940년 6월 동방 그리스도의 교회[東方基督の教會,

Tongpang Preaching Station]를 시작하였다. 모임 장소는 경상북도(慶尙北道) 경주군(慶州郡) 경주읍(慶州邑) 동방리(東方理)에 있었으나 정확한 번지는 알 수 없다. [현 경상북도 경주시 동방동] 그리고 전도자가 누구인지도 발견하지 못하여 아쉽다.

지금까지 살펴본 강명석 선교사의 교회 설립과 제자들에 관하여 몇 가지를 바로잡고자 한다. 첫째, 김세복은 강명석이 경성에서 최초로 신당정교회를 설립했다고 했다. 이 교회는 확인결과 기독교회(그리스도인교회) 김요한[金約翰, 김홍범(金興範)] 목사가 1937년 3월 7일에 설립한 교회였다. 이 교회는 6월 23일(수) 조선총독부에 포교소 설치 계를 제출하였고, 8월 18일(수) 조선총독부관보에 게재되었다. [국가기록원(1937), 『조선총독부관보』, 제3178호.] 그리고 1938년 3월 6일 창립 제1주년 기념 예배에 강명석 선교사를 초청하였고, 예배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였다. [그리스도의 연구소, 김요한 목사 자료.] 그런데 김세복은 이 사진을 근거로 “강명석이 신당정교회를 설립했다”라고 한 것이다.

둘째, 강명석 선교사는 몇 개교회를 개척했을까? 7개 혹은 8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지만, 신당정교회를 포함한 견해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신당정교회는 기독교회임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필자는 지금

까지 아무도 소개하지 않은 두동교회를 조선총독부관보에서 찾아 최초로 소개하였다. 그러므로 강명석은 울산교회, 동교교회, 경주교회, 대현교회, 반성교회, 두동교회, 송림교회, 동방교회 등 8개 교회를 개척한 것을 밝힌다[교회 설립 순서대로 소개함].



신당정기독교회 창립제1주년 기념예배(1938.3.6),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연구소
우측 체이스 선교사, 김요한 목사, 강명석 선교사(한복)

셋째, 반성교회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그리고 유흥기 전도자를 조선총독부관보에서 찾아 최초로 소개하게 되어 교회사학자로서 보람을 느낀다. [김세복은 울산군 수동면 반천에 ‘진양반성교회’라고 소개했다.] 넷째, 강명석 선교사의 제자들로는 곽해민, 이용주, 강종원, 유흥기 전도자와 박주영, 김운태, 이창원 집사, 그리고 이윤창 형제 등 8명이 사역한 것으로 소개한다.